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껌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씹을 수 있도록 고무에 설탕과 박하 따위의 향료를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서 단물을 빼어 먹는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껌'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씹을 수 있도록 고무에 설탕과 박하 따위의 향료를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서 단물을 빼어 먹는다.

껌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껌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껌 사전 표기 요약	—	—	—	—	—	●→
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껌
  20세기현재
- 샘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샘, 껌

껌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껌’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다른 언어와 한자음

‘껌’은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20세기에 나타나는 ‘샘’은 ‘ㄱ’을 ‘ㅿ’으로 적던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문헌 속의 껌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샘, 껌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샘, 껌

출처 1921 조선일보 1월16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요사이에 저녁이면 쇼위 고학싱이라ᄂᆞᆫ 녀자가 도라다니며 추링 샘을 ᄂᆡ놋코 사라 ᄒᆞᄂᆞᆫ 일이 잇다고 ᄒᆞᄂᆞᆫ바.

현대어 풀이

요사이에 저녁이면 소위 고학생이라는 여자가 돌아다니며 추잉 껌을 내놓고 사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바.

출처 1929 조선일보 6월 6일 3면

용례 02

문헌 용례

여송연을 피워 가며 『쎄루』를 마시며 『촉콜렛』을 먹으며 썸을 씹어 가며.

현대어 풀이

여송연을 피워 가며 맥주를 마시며 초콜을 먹으며 껌을 씹어 가며.

출처 1934 조선일보 10월 12일 3면

용례 03

문헌 용례

질겅질겅 껌을 씹고 잇는 게집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껌의 보충 설명

'껌'은 영어 'gum'에서 온 말이다. 영어 'gum'에는 '고무'라는 뜻도 있고 '껌'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말에서 '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주로 'chewing gum'이라고 한다. 우리말에서는 '고무'는 일본어를 통해 받아들여 '고무'로 정착이 되었고, '껌'은 영어를 통해 받아들여 '껌'으로 정착이 되었다.##껌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발명되었다. 실각한 멕시코의 대통령이 미국에 머물면서 발명가에게 멕시코에서 가져온 치클로 값비싼 고무를 대체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치클로 고무를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맛을 더해 씹을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chewing gum'이라 불렸다.##일본 추잉 껌 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1916년에 껌이 들어왔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직접 수입되어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어에서는 껌을 'ガム(가무)'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받았다면 '가무' 혹은 '까무' 정도로 우리말에서 쓰였을 것이나 1920년대에 이미 '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gum'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면 '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영어의 유성음, 즉 b, d, g는 우리말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gum'의 경우는 일찍부터 된소리 발음으로 표기가 되었고 이것이 굳어져서 관용으로 '껌'이라는 표기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껌이 일찍 보급되기는 했지만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껌이 널리 보급된 계기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정 시절부터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의 보급품에 껌이 포함되면서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껌 관련 낱말

고무

껌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피에르 싱가라벨루/실뱅 브네루 편 김아애 역 2022 《세계사 만물관》 윌북
- 안정효 2000 《가짜영어사전》 현암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껌의 뜻과 역사